

[6] 박 창 신

이씨 조선 선조 때의 선비요 효자로 이름 높은 박 창선의 이야기다.

박씨는 깊은 생각을 하며 지금의 신창을 지나 도고로 가는 무악재 고개를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 무악재에 다 올랐을 때일이었다.

"아! 오늘도 와 있구나."

하고 감탄을 했다. 어제의 그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다.

어제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박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소를 찾아 가느라고 이 무악재를 넘고 있었다. 그 때 어두운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다.

"앗! 호랑이닷!"

박씨는 너무 놀라 자빠질 뻔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가며,

"나는 지금 아버님 산소로 가는 길이다.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러느냐?"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슬슬 다가오며 등을 타라고 시늉을 했다.

"나보고 타라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 타보자."

박씨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탔다. 박씨를 태운 호랑이는 쏜살같이 숲속을 달렸다.

"산에 데리고 가서 잡아 먹으려는 것은 아니겠지....."

박씨는 그런 생각까지 하며 호랑이에게 몸을 맡긴 채 참고 있는데 호랑이가 발을 멈추었다. 박씨는 가만히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 보았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거기는 바로 박씨 아버지의 산소앞이었다.

박씨는 하도 신기하여,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데려다 주는 거냐?"

하고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박씨는 아버지의 무덤앞에 두번 절하고 오늘의 일을 돌아가신 아버님께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호랑이는 그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다시 타라는 시늉을 했다.

"그래 고맙다."

그렇게 해서 다시 호랑이를 탄 박씨는 무악재에서 내렸다. 그런 다음에 호랑이는 기쁜 듯이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하여 박씨는 몇 해 동안 호랑이를 타고 산소에 다녔다. 이 소문은 서울까지 좌악 퍼졌다.

"박씨의 효성이 하도 지극하여 하늘까지 알아 주는 구료."

세월이 많이 흘러 박씨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는 충남 아산군 도고면 효자리에 묻혔다.

"어머나, 이게 뭐야! 큰 호랑이가 무덤앞에서 죽었네!"

박씨의 무덤을 찾아온 가족들이 소리치르며 무덤 가까이로 가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 생긴 호랑이가 쓰러져 있었다.

"이 호랑이도 나이가 많아 죽었군"

박씨의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호랑이의 죽음을 가엾게 생각했다.

"이 호랑이도 아버님 곁에 묻어 줘야지" 아들은 일생동안 아버지에게 충실했던 호랑이를 위로해 주고 무덤옆에 묻어 주었다.

이 이야기는 금방 대궐의 임금귀에 들어갔다.

"허 참, 효성스러운 사람이구나. 호랑이도 그 뜻을 아니 참, 영특하기도 해라!" 임금님은 이렇게 칭찬하며 박씨의 묘앞에 사당을 짓고 "효자비"를 세우고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그 다음부터 박씨의 산소가 있는 마을을 "효자리"라고 하였다.

효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박 창선씨의 효행때문일까?

지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한다. 무엇인가 내 머리에 와 닿는 듯도 하다.

[7] 안 일 관

한 시대를 통해 보면 충·효·의 등의 여러 방면에서 빛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 문헌에 그들의 높은 덕과 업적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보석을 찾아, 숨겨져 있는 분들을 발견하여 그 분들의 공을 작은 손으로나마 닦아 빛을 내려 한다.

효자 안 일관은 흥령 부원군 경공의 10대손으로 어릴적부터 천성이 곱고 웃어른에게 예의 범절을 다 할 줄 알며 부모님에 대한 효도 또한 남달리 뛰어나 종가 어른들의 총애와 귀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옛 말이 있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쏟는 정성이 가특했고, 자라나서는 더 한층 빛을 발휘했다. 그래서 일관은 아버지 어머니의 검은 머리털이 하나 하나 변해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며 그 효도를 다했다.

아버님이 병환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셨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히 살다 가셔도 서글플 터인데 병까지 얻어 고생하시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니 일관은 몇 백 리 되는 곳에 용한 의원이 있기에 엄동설한에 발걸음 한번 멈추지 아니하고 단숨에 달려가 약을 얻어 아버지께 드렸으나 아버님의 병환은 더 해만 갔다.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보면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일게야.' 일관은 자신의 정성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리라 다짐했다.

이런 일관을 본 한 의원이 가르쳐 주기를 "자네 정성이 그러하니 내 한가지 방법을 알려 주기는 하겠는데 워낙 이루기가 힘들어서"

"힘들어도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니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자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게야 이렇게 되뇌이며 그는 청아를 다려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말에 일관은 가슴이 멎는 듯 했다.

그 구하기 힘든 청아를 그것도 이 추운 겨울에 그는 앞일이 걱정되었다.

"청아를 구하지 못한다면 아버님은 어떻게 되시? 하지만 구해 봐야지"

하며 백방으로 수소문도 해 보고 온 산천을 찾아 헤맸으나 구하지 못했다.

사연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미친 짓이라며 일관을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일관의 정성을 알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만 청아를 구할 수 있는가를 일관과 같이 걱정해 주는 것이었다.

일관은 하는 수 없이 하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고 믿고 앞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늘님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원을 호소하였다.

그렇게 한 지 백일째 되던 날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일더니 어디선가 한 줄기의 바람이 불어 오는 것이었다. 더욱 더 이상한 것은 그 바람에 청아가 실려 오는 것이다.

청아를 얻은 일관은 하늘을 향해 몇 번씩 절을 하며 감사드렸다. 그리고 나서 청아를 다려 아버지께 올렸더니 며칠 사이에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하늘을 울린 일관의 효성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병이 나은지 얼마 후 아버지께서 죽순이 몹시 잡숫고 싶으시다며 일관에게 알려 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죽순을 구하는 일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었다.

이러던 차에 일관이 꿈을 꾸는데, 신령님이 나타나셔서 고개너머에 있는 칠성산을 오르다 보면 버섯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거기에 가보라 하셨다.

꿈이 하도 기이해서 일관은 즉시 그 곳에 가보기로 했다. 칠성산은 여간 험한 산이 아니다. 눈이 무릎까지 오고 가파르기가 이룰데 없이 오르기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었다. 발을 잘못 디디어 구르기를 몇 번. 이렇게 해서 버섯바위에 이르니 정말 하얀 눈 사이로 파아란 죽순이 돋아 있었다. 일관은 그것을 뜯어다 해 드렸다.

일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했던들 이런 일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충청도 관찰사 심 선지가 신창면에

들렀다가 그의 높은 덕과 효성을 받들어 궁화리 일구에 효자문을 세움으로써 더 한층 빛을 나타내게 되었다.

부모님을 받들고 모시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다. 이 도리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다. 그 풍속이 깨어지고 있다. 그 깨어지는 것을 다시금 주워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

나란 존재가 있기까지의 부모님의 정성을 생각해 보아서 다소나마 소홀히 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져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8] 이 기 환

이 기 환씨는 1919년에 충남 아산군 온양읍 용화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기환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라 모두 좋아했지만 어머니만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면 뭘하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환은 어릴적부터 총명하고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기환이가 20세가 되던 해 그는 남의 집 머슴이 되었습니다. 기환이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였기에 빚을 저서 그의 아버지도 기환이가 머슴으로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기환이가 아버지를 이어 이집 머슴으로 왔던 것입니다.

어느날 주인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자네는 어쩌서 내가 경작하라는 땅을 남에게 주고 죽을 먹고 사나. 자네는 정신이 있는 거야?"

기환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밥 그것도 보리죽 한 사발을 먹기도 전에 불러 왔기에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자네는 우리집 종이니까 우리 집에서 밥을 먹어도 되는데 왜 집에 가서 죽을 먹고 오나.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인가? 하여간 착실하다고 돈이 슬슬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야. 그래 쌀이나 두어말 줄까?"

"아닙니다. 아직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주는 호위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쌀을 준다고 해서 그냥 주는 주인이 아니고 가을에 가면 준다면 쌀의 곱질을 알아야 하겠기에 그는 부득이 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는 낮에는 주인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었고 밤이되면 겨우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아내와 동생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오늘 주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아들의 손목을 꼬옥 잡고는 아들의 등을 툭툭 두드리고 아들과 같이 웃으면서 보리죽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내색을 조금도 하지 않는 기환은 밥상을 물리고 곧 삼을 들고 사립문을 나왔습니다. 달은 휘영청하게 밝았습니다. 그는 언덕에 올라가서 열심히 산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년을 두고 버리고 별렀던 야산을 하나 장만하였기에 밤에는 산을 일구어 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환은 초저녁부터 새벽닭이 울 때까지 밭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밭을 만든다는 한 가지 일념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기환이 작업을 시작한 지 일년이 지나고 이년이 지났습니다. 기환이가 경작해온 땅에다 과일나무를 심었고 또 한쪽에는 곡식을 심었습니다. 밤이면 기환은 남몰래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하나의 야산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뿌리를 손으로 캐내는 힘든 작업까지도 했습니다. 혼자서 모두 했던 것입니다. 흙속에서 돌이 나오면 밭뚝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기환이가 개간한 땅은 점점 커져서 온 산이 전부 밭이 되었습니다. 개간한 땅에다 곡식도 심고 또 논을 만들었습니다. 곡식을 심은 기환은 그곳에다 그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가꾸었습니다. 논과 밭에는 그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지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풍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성공했다고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기환은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하게 일만하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듬해 그는 가난한 생활을 했던 오두막살이 집 대신에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기 위하여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안락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에는 죽은 면한 밥상과 고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환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아버지를 잃고 버린내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울어 본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기환은 쉴 새 없이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던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자기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모셨고 조상들의 제사에 정성을 다했으므로 그는 효자로서의 이름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넓게 펼쳐진 용화마을의 들판을 바라볼 때 그분의 피땀어린 활동상이 보이며 오늘날 실시되어 선풍이 일고 있는 새마을 정신, 새마을 운동을 그 분은 옛날에 실시했고 이로 인하여 몸피게 살 수 있었고 효성껏 어머니와 조상을 모실 수 있었으며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은 남의 머슴이 아니며, 문맹자가 아니며 좋은 환경속에서 많은 세월 교육을 받고도 제가 할 일을 알지 못하고 부모와 나라에 보탬을 커녕 걱정만 끼치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것만 같습니다.

머슴이라하여 주인한테 멸시 당할 수 없으며 약소국가라하여 강대국의 속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그렇게 당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यो, 있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과 생활방식은 우리 후손에게도 계승 시켜야 할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9] 이 재 빈

우리 고장에는 효자·애국지사·열녀 등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었음을 서적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고, 또한 그런 분들의 후손으로 자부심을 느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극소수에 미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록적으로 보관도 못 되었고 우리들의 귀에 전혀 생소한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제부터 소개하려는 이 재빈님도 그런 분들 중의 한분이라 생각해 본다. 사실 나도 어제 까지만해도 이 분의 존함을 들어 본 일조차 없기 때문이다. 비록 늦게나마 이런 훌륭한 분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가슴 뿌듯한 바이다. 이 재빈님은 총무공의 7대손으로 1772년(영조 48년)에 아산에서 태어나셨다.

불과 5세의 어린 나이에도 어찌나 영특하였던지 토를 달아 글을 읽는 수재였다한다.

어느 날인가 그 날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버님의 부르심이 있어 가서 뵈오니

"재빈아, 이젠 너의 지식도 많이 쌓여 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하냐?"

"아닙니다. 아버님, 소자는 아직도 미진함이 많습니다."

"허허! 그럼 언제쯤 가서야 너의 지식에 만족을 느끼겠느냐?"

"감히 아뢰옵니다만 제 평생 걸려도 지식의 한계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흐흠....."

이렇듯 이 재빈님은 겸손히 자신을 뽐낼 줄을 몰랐다.

인간의 숙명이랄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만 갔다.

어느날, 문득 어머니의 고기 반찬 없는 진지상을 발견하고는 메어질 듯한 마음의 아픔에 자신의 무력함에 어머니께 불효 막심함에 용서를 빌었다.

"원, 아범도 이만하면 임금님의 진수성찬이지 뭘 더 바라겠나?"

하며 어머니는 도리어 재빈을 위로하는 것이었다. 앞친데 댈친격으로 홀로 계시던 어머니께서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으셨다. 이 재빈님은 부인과 더불어 좋다는 약은 어떻게든 구해다가 드렸고 이름이 난 의원들도 다 모셔다 치료를 해 보았지만 효험이 없고 병은 더욱 더 악화되어 갔다.

밖은 칙흑같이 어둡고 싸늘한 밤이었지만 이 재빈님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병구환을 하고 계셨다.

"재빈아! 이제 이 몸도 살 만큼 산 몸 이제는 너의 아버지 곁으로 갈 날이 온 것 같구나."

이 재빈님은 이 말을 듣고 앉아 있을 수 없었던지 바깥으로 뛰어나와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칼과 사발을 들고 부인방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가슴을 떨었지만 남편의 효성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 재빈님은 굳은 결심을 한 듯 손가락을 잘라 사발에 피를 받았다. 아픔도 고통도 잊고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숨이 가빠진 어머니께 급히 피를 마시게하니, 어머니께서 기운을 회복한 듯 반나절이나마 더 사셨다 한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머님 무덤을 살피며 곡을 하니, 그 효성이 지극하여 이를 세상의 사표로 정려를 세웠다.

벼슬로는 1801년(순조1년) 무과에 급제하고, 경상좌도 병사에 이르렀고, 1832년(현종 3년) 세상을 하직하셨다. 그때가 향년 66세이셨다.

우리는 죽어가는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자른다든지, 손가락을 자르는 장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만약 내가 그런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는지. 부모님의 마음에 못질만 해왔던 내 자신의 행동에 고개가 떨구어 질 뿐이다.

[10] 이 태 연

효자 이 태연은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15대 손으로 지금의 영치면 강청리에서 의호씨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의 자는 성진이며 호는 강옹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글을 좋아했으며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동네에서 효자라고 불리어 졌다. 어느날 그만 그의 부친께서 자리에 앉아 누우셨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친의 간호에 온갖 힘을 기울였다. 졸다는 약은 모두 써보았으며 잡숫고 싶다는 것은 모두 해드렸다. 그런데 그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병은 안타깝게도 더 악화만 되어 갔다. 어느날 그의 부친께서는 눈이 펄펄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만 눈앞이 깜깜하였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디서 딸기를 구할 수 있을까? 그는 밤낮으로 신령님께 기도를 드렸다. 어느날 그는 부친의 간호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스님이 시주좀 해달라고 왔다. 그의 집은 쪼들리는 살림에 약값 등으로 하여 쓸 곳은 많고 넉넉지는 못했지만 성의를 다해 시주를 했다. 그 스님은 태연의 얼굴 빛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태연은 사실대로 부친께서 지금 병석에 누워계시는데 이 추운 겨울에 딸기가 잡숫고 싶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은

"그대의 효성이 너무 지극해서 내가 감동했소."

하면서 영인산에 가보라고 했다. 태연은 너무 기뻐서 그날 바로 영인산으로 갔다. 영인산은 너무 험하고 눈이 많아서 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며칠을 헤매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 눈위에 쓰러졌다.

그는 의식을 잃고 있는데 꿈속에서 저번 낮에 온 스님이 나타나서 "태연아, 빨리 일어나 거라, 너의 부친이 위독하시다. 어서 딸기를 따서 갖다 드려라"하는 것이었다. 태연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 일어날려고 하니, 몸이 천근만근 되는 것처럼 땅에서 떼어지지 않았다. 억지로 일어나려다가 그만 뒹굴고 말았다. 떼굴떼굴 굴러 내려 가다가 멈추어진 곳은 바위 옆 따스한 양지쪽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앞드려 진채 바위 밑에 보니 딸기가 빨갭게 익어 있었다. 태연은 뿔 듯이 기뻐했다. 그는 딸기를 따서 정결하게 그의 부친께 갖다 드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부친께서는 그 딸기를 잡수시고 병의 차도가 들었다. 동네 사람들도 태연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그는 효로써 극진히 봉양하였다. 그리고 책읽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그의 부친은 그의 간호속에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태연은 살아서 효도를 제대로 못했다면서 슬프게 울었다. 그는 그의 부친 산소 밑에 움막을 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간 계속하여 산소를 정성껏 돌보았다. 사람은 거의가 부모의 뜻을 모른다. 자기가 커서 부모가 돼서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

살아 있을 때는 부모님을 구박하고 잡수실 것도 제대로 안해 주다가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울고 불고 남에게 효자소리를 들으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놓는다. 옛날 속담에 죽어서 돼지잡느니 보다 살아서 쌀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따듯하게 해 드리는게 효자라는 말도 있다. 돌아 가셔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잘 모셔야 한다. 태연의 효성은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 갔다. 효로써 부모를 섬기고 열성으로 공부했던 이 태연은 나라로부터 효자의 교지가 내려져 그를 기리는 정려가 강청리에 세워졌고 벼슬도 높아져 보람찬 생애로 일관했다 한다.

[11] 정 수 징

정 수징은 숙종 17년(1691)에 태어 나셨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총명함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으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셨다. 그가 점점 자라면서

서 부모에 대한 효성 또한 극진하여 먼저 부모에게 드린 후에야 자신도 안심하고 먹었다고 한다. 또한 효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조석으로 부모님의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부모를 공경하였고 일이 있어 밖에 나갈 때나 외출 후 귀가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에게 이를 고하였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밤이었다. 수징은 부모님의 방안에 혹시 찬 기운이 스며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가 이른 아침에 어젯밤 편히 주무셨나 하고 문안을 드린 후에 부모님의 안색을 살피셨다. 부모님께서 수징의 마음을 알고 "그래 편히 잘 잤으니 어서 관어나 나가봐라 늦으라"하는 말씀으로 다소 안심은 됐지만 왠지 관부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자꾸만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다. 하도 이상하여 수징은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 과연 어머니가 병을 얻어 끙끙 앓고 계셨다. 그는 "나의 정성이 부족한 탓으로 어머니께서 병을 얻으셨으니 이를 어찌할꼬"하며 난감해 했다. 생각한 끝에 그는 먼저 한 겨울의 추위를 무릎쓰고 찬물로 목욕을 정성껏 한 다음에 단상에 단정히 앉아 자신이 어머니의 병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나서 눈이 하얗게 덮인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한 겨울에 그것도 눈속에서 약초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꽤 깊은 곳까지 들어 갔을 때는 벌써 어둠이 찾아 들고 있었다.

그 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수징을 발견하고 말하기를 "젊은이가 이런 깊은 산중에 웬일이오?" 하기에 "예, 저는 어머니의 병환때문에 약초를 구하려고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날이 저물게 됐으니 정말 큰 일입니다." 했더니 그 노인하는 말이 "허 기특도 하구나. 과연 듣던 대로구나. 내 3년 전부터 알아 둔 장소를 알려 줄 테니 그곳엘 가 보아라."하고는 그 장소를 말한 후 홀연히 눈길사이로 사라졌다. 수징은 정신이 번쩍들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허공에다 뿌리고 그 장소에 가서 눈속을 헤치고 보니 과연 큰 약초가 초연히 눈속에 묻혀 있었다. 곧 그것을 케어서 집으로 한달음에 돌아와 손수 그것을 정성껏 다려서 드렸다. 그리고 날마다 한 잠도 자지않고 모친의 병간호에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하셨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수징의 효성에 대한 찬사가 더욱 높아져 갔다. 못 또한 자신이 손수 빨아 입어 만인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었다.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마지막 효도의 길을 다하기 위해 몸이 쇠하여 졌을 때에야 비로서 그 예를 마치셨다고 한다. 그는 나라에 대한 충성 또한 남달라서 영조 4년(1728) 무신년에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죽음으로써 싸워 의로써 막기를 결심하고 무리를 이끌고 군경을 지켰다 하며 누가 자신의 충효에 감격해서 말하면 그는 반드시 화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어 이르기를 "충효라는 것은 인자의 당연한 일이다. 임금을 나의 선조같이 한 후에 비로서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유유히 말은 일에 열중하셨다. 영조 23년(1747)서 모든 자손과 노비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음식을 함께 즐긴 다음 한 노비에게 분부하여 말을 끌고 와서 안구를 갖추라고 말하기를 "사람의 죽음은 모두 정수가 있는데 나는 오늘 영거하니 너희들은 모두 잘 있거라."하고 말을 마치자 노비에게 말고삐를 잡으라 하고 서서히 세상을 떠났다고 전한다. 정 수징이라는 분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이론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충효에 대하여 반성하게 한다.

그는 스스로 행동을 실천하므로써 못 사람들의 거울이 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12] 조 상 우

온양읍 온천리 3구 산 18 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정각은 영티면 연화동 현재 배방면 장재리에서 나신 인조, 현종, 숙종때에 충신이며 학자로서 청렴하게 일생을 보내신 시암 조 상우선생의 혼이 묻힌 곳이다.

어느날 천안 목천에 사는 한 진사가 상우의 아버님을 뵈 목적으로 이 집을 방문하셨다.

그때 마당에서 놓고 있는 상우가 하도 영리하게 생겼기에 불러놓고 말을 건네시었다.

"너 글을 어디까지 읽었느냐?"

"아직까지 글을 못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나이가 되도록 천자문 하나도 못 깨우쳤단 말이나?"

"글 배우고 싶은 마음 간절하오나 스승님이 없어 못배우고 있습니다."

"딱한 일이로구나. 내가 배덕리에사는 흥 만전(흥가신)이라는 분에게 글을 써 줄테니 이것

을 가지고 가면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실게다."

그날로 짐을 싸가지고 흥 만전을 찾아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먼저 글을 배우던 50여 명의 학도들을 뒤늦게 글을 배우는 공을 하시했다. 하지만 공의 명석함과 영리함은 스승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런 어느날 공이 아침에 방문을 열고 앞산을 바라보는데 항상 이상하게도 한 지점에서 뿌연 안개가 깔리고 학 한마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저 땅은 필시 좋은 땅일게야. 스승님께 부탁을 드려 그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겠다."

"스승님,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꼭 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공은 본래 신중하기 때문에 스승님은

"생각해 보자"

하고 일단 청을 거두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으로 의문의 3일이 지났다. 다시 공을 불러 무슨 부탁인지 상세히 들어보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공은 꼭 들어 주셔야 한다는 말을 수 십 번 되풀이 했다. 스승은 또 망설이다 체념한 듯 승낙을 했다.

공은 얼마전부터 보아온 학의 이야길 했다. 그리고 그 땅을 갖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다. 이리하여 귀중한 땅을 잃은 스승은 시암이 말한 곳을 찾기위해 아침마다 앞산을 바라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공의 나이 18세, 당숙과 함께 과거를 보러 갔다. 그때 당숙의 나이는 25세였다. 그런데 과거를 치른 결과는 당숙과 공이 똑같아서 장원을 가리는데 문제가 되었지만 당숙께서 공에게 양보하시고 다른 벼슬을 원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장원은 하였으나 그때의 정세가 인조의 난폭한 정치와 벼슬아치들의 행패로 인해 세상은 문란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공은 마음으로 목숨이 위험함을 느끼면서도 벼슬을 하지 않았다.

인조의 폭력은 날로 심해져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공은 상소문을 올리셨다.

"백성은 풀과 나무껍질을 먹고 사는데 조정에서는 매일같이 쾌락을 즐기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으나 그것을 받아주고 귀담아 듣지 않는 인조는 달면 먹고 쓰면 뺏는다는 식으로 앞을 내다 보지 않고 임금을 넘보려 한다는 죄목하에 국법으로 죽어야 한다며 화를 냈으나 그때는 유림들의 세력이 컸던 때라 임금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국회 도서관에 있는 이조실록에는 이 상소문과 함께 문장과 필치가 뛰어난 유명한 시암집도 전한다. 충성 못지않게 효성 또한 지극한 공에게는 병든 아버님이 계셨는데 병의 차도를 알기 위해서는 변의 맛을 보아야 한다는 수위의 말을 듣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도 못내는 효심을 보이시기도 했는데 효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하루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고 있던 중 잠든 아버지가

"잉어 한 마리만 먹으면 병이 나을텐데"하는 말을 듣고 공은 심한 추위를 무릎쓰고 끽끔 얼어붙은 개울가의 얼음을 깨고 몇 날 며칠을 지새우며 잉어를 기다렸으나 잉어는 잡히지 않았다. 동지가 가까운 겨울밤의 공기는 너무나 차가웠지만 피곤하고 지친 탓으로 깜빡 잠이 드셨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

\ "아니 신령님"

"너의 정성스런 효심에 감복하여 이 잉어를 너에게 주노라. 어서 가지고 가 아버님께 끓여 드리도록 해라."

"고맙습니다. 신령님"

얼른 눈을 떠 주위를 살펴보니 그의 옆에는 팔딱팔딱 뛰는 싱싱한 잉어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다시 한번 감사의 표시를 하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손수 잉어를 끓여 드렸더니 그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아버지의 병이 나으셨다.

이러한 모든 사실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감동을 한 조정에서는 공의 효성을 거룩하게 여겨

비석과 함께 효자문을 세워 주었다. 그 때 공의 나이 72세였는데 공의 지극한 효성과 곧은 성품이 어느 정도였는지 능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자손들이 갈고 닦고 하였으나 세월은 속일 수 없는지 많이 변색되어 변해져 버린 그분의 비석은 지금에 와서도 청렴한 생활을 한 모든 것이 배어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으며 좀더 그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음과 조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아쉬움을 남긴채 인생을 참되고 보람있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굳은 마음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13] 조 익

포저 조 익은 조선 선조 1579년에 공주 유구에서 출생했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광해군때 정치가 어지러워 충남 아산의 신창으로 낙향했다.

그후 인조 반정 때 다시 임금의 부르심으로 벼슬길에 올라 대사성 직제학겸 예문관제학 이조·예조 판서라는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의 저서에는 문집 18권(일명 포저집) 유서 10권 연보 2권 가례향 2권 등이 있어 전해 내려오는데 그 모든 저서가 조 익선생의 학식과 덕망을 말해 준다.

지금 소개할 일화는 포저 조 익이 벼슬에 올라 한양에 있을 때의 일이다.

5남 1녀의 자녀를 둔 조 익선생의 맨 큰 아들을 혼인시켰다. 큰 경사를 치루느라 온 집안 식솔들이 거의 다 동원되다시피 했다. 특히 조 익선생의 모친은 큰 손자를 장가들인다는 기쁨에 제일 앞장서서 잔치를 준비했던 것이다.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지라 잔치가 끝난 후 조 익선생의 모친은 그만 자리를 깔고 눕게 되었던 것이다.

"어머님 의원이 왔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병은 씻은 듯이 나으실 겁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조 익선생은 주름살이 잡혀 더욱 험칙해 보이는 노모의 얼굴을 지그시 내려다 보며 안스러움을 어찌할 줄 몰라했다. 모친의 손목을 짚고 진맥을 하던 의원을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이리 가우똥 저리 가우똥하였다. 그리고는 조 익선생을 바라보며 "잠깐 나오실까요?" 의원을 따라 나온 조 익선생은 손을 부벼대며 안절부절이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도 서울 장안의 웬만한 병은 다 고쳐봤습니다. 그런데 모친의 병은 병명조차 모르겠습니다. 저리 신열이 오르고 가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기관지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수족이 찬 것은 아무리해도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나은 의원에게 보이심이 옳은 줄로 압니다."

그후 조 익선생은 내놓아라 하는 명의들에게 모친의 병세를 보였으나 아무도 그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했다. 조 익선생은 "내 효가 부족함으로다"하며 괴로와 했다. 모친의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조공을 만나야 겠소. 가뜩이나 집안에 우환이 있어 난리인데 당신같은 돌종이 뭘 안다고 우리 대감마님을 만난다는 거요? 어서 나가시오" "내 아무리 돌종이로서니 마님께 실수할까 보냐?" "에 잉 술 먹는 중이 중이요?" 이때 조 익 선생은 대청 마루에 들어서서 "어허! 왜 이리도 소란스러우냐?" 중놈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은 얼른 손을 들어 함장하고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승이 대감께 필히 아뢰올 말씀이 있기에 이리 찾아 보였사옵니다." 비록 장삼은 허름하고 옷매무새가 동네 망나니인 양상을 정도이나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었다. 조 익선생은 큰 기침을 한 번 한후 "안으로 드시지요" "마님 아니 되옵니다. 이 중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돌파리 입니다요" 깜짝 놀란 중이 말리며 끼어 들었다.

"어허 시끄럽다. 내 집의 손님을 어찌 그리도 박대하느냐?" 어느새 대감과 스님은 방안에 마주 앉았다.

"소승이 마을의 소문을 들었사은대 이덕의 노마님께서 편찮으시다지요?"

"그렇소이다."

"대감께서도 효성이 또한 지극하시어 노마님의 병 구환을 손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내 비록 뛰어난 신통력은 없으나 혹 대감께 도움이나 되지 않을까 하고 왔습니다. 대감께서도 약간의 한방의학은 알고 계신다지요?"

"부끄럽습니다. 약간은 알고 있으나....."

"그러시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조금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사오나..... 노마님의 소변을 맛보는 것이옵니다. 그맛을 상세히 파악한 후 성밖에 사는 김의원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그에 알맞는 한약을 지어줄 것이옵니다. 그리하시고 소승은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하고 중은 가버렸다.

조 익선생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뿔듯이 기뻐했다. 그리고는 아내를 불러 사정을 이야기 한 후 어머니의 소변을 받아 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질 그릇에 담긴 소변맛을 본 후 조 익선생은 성 밖에 사는 김의원에게 찾아가 한약을 지어 왔다.

그 한약을 먹은 어머니는 서서히 회복하더니 마침내는 병석에서 일어나고야 말았다. 그 후손들은 이 일을 계속 전하며 포저 조 익의 효성스러움을 기린다고 한다.

[14] 채 동 교

그는 1771년 2월 6일에 태어나서 1823년 12월 5일 5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효심에 찬 생활로 일관하신 분이다.

그가 젊었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영문 모를 병이 아버지를 병석에 눕게 했다. 좋다고 하는 약이란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부유했던 기세만 점점 기울었다. 쪼들리는 살림에 추위는 다가오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하루 하루를 보내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께서는 대추가 잡숫고 싶다고 하셨다. 그는 암담했다. 이 엄동설한에 어디서 대추를 구한담. 그의 걱정은 태산 같았다. 어째든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한 그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 다녔다. 하지만 허사였다. 할 수 없이 체념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추나무 밑에서 대추 몇 알이 떨어져 있었다. 하늘의 도움인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대추를 얻었다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드렸다. 그리고 나서 며칠뒤 아버지께서는 또 잉어고기가 잡숫고 싶다고 하셨다. 그는 또 눈보라치는 날씨에 개울로 나갔다. 개울에 무슨 잉어가 있으며 또한 이 추운 겨울에 잉어가 있을 턱이 없었다. 두 뺨 정도의 얼음을 깨고 낚시를 드리웠다. 반나절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잉어는 커녕 붕어 한마리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더 있으려니 어디선 커다란 잉어 한마리가 뛰어 올랐다. 드디어 그는 잉어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얻은 잉어로 그는 아버지께 맛있게 요리해 드렸다. 그렇지만 이러한 효성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나 그의 효성은 널리 소문이 퍼져 조정에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에게 정문을 하사했다. 이 정문은 충남 아산군 염티면 대동리에 세워져 있다. 또 그의 아들은 아버지께 고기가 잡숫고 싶다고 하자 자기 허벅지를 베었다 하니 나는 감탄과 함께 어느 소설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서 믿어지지 않았다. 요즈음과 같은 세상은 시부모까지도 모시기 싫어하니 반성해야 하고 옛 선인들의 효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지 말고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니 다짐해 본다.

[15] 효부 경주 최씨부인

지금의 인주면 금성리에 살았던 지 한문씨의 아내인 경주최씨 부인의 효성에 얽힌 이야기다.

옛날 광해군때 일이다.

요새 13살 나이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에 불과한데 그 당시는 13살에 시집을 가곤하여 어린 소녀로서 시집살이를 했다 한다.

그녀가 13살로 시집을 온 뒤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으며 시집살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질고 착하였는지 불평하나 없이 고생끝에 세월은 흘러 몇년이 지난 후 시어머니는 무서운 병에 걸려 눕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의 행복한 생활은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 또한 어두운 그림자가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정성껏 간호를 하였는데 그 곁에 떠나지 아니하였고 날이 저물어도 잠도 자지도 않고 졸음을 참아내며 간호를 하다보면 어느새 날이 밝는다. 지친 그녀는 부엌으로 가 시어머니가 드실 식사 준비를 하느라 걸음을 쫓아가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자기의 몸도 보살핌없이 마음과 몸 모두 시어머니의 병걱정 뿐이었다.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앞에 놓으니 며느리가 고생하며 밥상을 차린 것을 고맙게 여기지 못한 채 밥상을 보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것이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진지를 드셔야 병이 낫지요." 하고 며느리는 말을 하였지만 식사는 커녕 도로 자리에 눕는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아프지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머님 무엇을 잡숫고 싶으세요." 하니 시어머니는 자그마한 소리로 고기가 먹고 싶다 하였다. 그녀는 너무 놀랜 마녀지 기절할 뻔하였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 냈다. 집안 형편으로서는 고기 살만한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 곧 고기를 해 드릴테니 아침만 참으시고 식사하세요 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오냐 내 들마 하여 며느리는 시어머니 잡숫기 좋게 밥과 반찬을 떠서 드렸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상을 내가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녀의 눈물이 시어머니가 보지 못하도록 뒤로 하여 부엌으로 나와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울면서도 시어머니를 욕하지 않고 자기가 잘 받들지 못하여 병에 걸린 것으로 마음이 아프기만한 그녀는 어떻게 해서 고기를 준비하는가 하는 생각뿐 자꾸자꾸 눈물이 흐르기만 하였다. 끝내 그녀는 생각한 것이 허벅지를 칼로 베어서 고기로 해야겠다고 하고 저녁식사로 허벅지를 베어내어 끓여 시어머니께 드리고 고기 있으니 진지 잡수시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식사를 하시며 "맛있다. 며늘아가야 어떻게 고기를 샀느냐?" 하시고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그녀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다. 시어머니가 울었을 땐 거짓으로 샀노라 하였다.

그후 그녀의 허벅지는 아물지 못하여 그녀 또한 자리에 눕게 되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세상을 뜨게 되었으며 시어머니의 병은 며느리의 어질고 착한 마음씨로 고생한 보람도 없이 낫지 아니하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효에 감탄하여 사랑해주지 못한 것을 뉘우치며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한 죄때문에 눈물을 지으며 며느리 생각하다 병은 더 악화되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죽은 며칠되지 않아 돌아가셨다 한다.

그로부터 며느리의 효가 세상에 알려졌고 나라에서는 효부비를 세워 주었으며 그 남편 또한 벼슬을 받게 되었다.

현재 금성리에 그의 후손인 지 성낙씨가 살고 있고 선조 할머니 효부의 비석을 통해 효행을 되새기며 자손 또한 죄씨 할머니 못지 않게 효를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예절 바른 민족으로 타민족의 부러움을 사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효"를 강조해 왔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청과 같은 효녀도 또 자식까지 약으로 써 어머니를 살린 가락한 효자 이야기도 들어왔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부간 문제를 들으며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기의 허벅지의 살까지 베어가며 시모를 공경한 그녀의 거룩한 삶을 모든 여성들은 한번은 가슴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라 생각된다.